

## /// 연구소 소식 ///

###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작성 및 공청회 개최

국어연구소에서는 '85년 7월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이하 [국어연구소안]을 작성하고, 동 7월 26일 학술원 회의실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안은 학술원 어문연구위원회 외래어 표기법 소위원회에서 1984년도에 작성한 '학술원안'(이하 '84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84 개정안은 1979년 문교부에서 작성한 '외래어 표기법안'(이하 '79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84 개정안은 1982년부터 3년동안 연구 검토하여 완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여론을 900여명의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84년 11월 최종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이 어문관계 표기법의 개정 사업이 건국 이후 조유의 사업이며, 그 개정 결과가 국민의 언어 생활과 문화 활동에 끼치게 될 영향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 '84 개정안에 대한 연구 검토 및 보완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문교부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84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따른 「외래어 표기법 용례집」을 작성하는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국어연구소에서는 원칙적으로 '84 개정안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표기법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79 개정안 및 '84 개정안의 작성 작업에 관여해온 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84 개정안의 공개를 통해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5년 2월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985년 2월부터 7월까지 16차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84 개정안을 수정 보완, 본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공청회에 제시된 국어연구소 개정안의 특징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국어연구소 개정안의 특징과 개요>

가. 기본 표기 원칙

1. 외래어도 현행 한글 표기 체계 안에서 표기하도록 한다.
2. 외래어의 본래 음가를 존중하되, 국어의 현실 발음에서 구분되지 않는 것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관용으로 굳어진 것은 관용을 존중하되, 관용 외래어를 포함하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작성하여 실제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
4. 실용성을 존중하여, 한글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자 결합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 나. 특징

1. 현행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84 학술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함.
2. 현행 한글 운용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음.
  - ㄱ. 외래어의 표기를 위한 별도의 기호나 문자를 만들지 않았음.
  - ㄴ. 장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음.
3. 표기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앴음.

#### 다. 개요

1. 체계 : 4장 10 절로 체계를 갖추.
  - 제 1 장 : 표기의 기본 원칙
  - 제 2 장 : 표기 일람표
  - 제 3 장 : 표기 세칙(1절~7절)
  - 제 4 장 : 인명 지명의 표기 원칙
2. 표기의 기본 원칙 : 개정안의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현행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살렸음.
3. 표기 일람표 :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스페인어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가나와 한글 대조표,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로 세분하여 표기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국제화에 대비하도록 하였음.
4. 표기 세칙 : 각 언어별 표기 세칙을 따로 붙여 표기법상의 혼란의 여지를 없앴음.

#### 라. 기타

1. 국어와 외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로 다양한 표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한 현행안을 존중하여 대폭적인 수정을 피하였음.
2. 표기법의 운용상의 제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따로 만들도록 함.